

보 도 설 명 자 료

(19. 10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 등록기자

제목 :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에 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음
(중앙일보 10.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미래자동차산업 발전 전략에 **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포함**하였으며, “업계가 MaaS 내용을 제안했으나, 정부가 거절했다”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- ◇ 10.17일 중앙일보 <택시업계 눈치? 미래차 로드맵서 차량공유 뺐다.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차량공유서비스 구체안이 검토되다가 최종단계에서 축소·생략
 - 자동차업계는 정부에 “MaaS 내용을 넣어 달라”고 했지만, 정부는 이를 거절
 - 정부는 MaaS를 제외하고 자율주행택시·셔틀 내용만 대책에 포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·국토부의 입장

- MaaS는 교통수단의 통합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, 동 전략에도 **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**
 - 스마트시티를 통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**통합모빌리티 서비스 테스트베드**를 가동하며,
 -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, 자율주행셔틀, 지하철, 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포함
- ※ 문의: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양병내 과장(044-203-4320), 박일철 서기관(4321)
국토부 교통정책조정과 강주엽 과장(044-201-3790), 나민희 서기관(3792)